

# ‘통합신당’ 출범...범여 통합 주도할까

## 대표에 김한길 의원...우리·민주와 세대결 펼 듯

### 유필우 의원 합류 교섭단체 구성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이 주도하는 ‘중도개혁통합신당’이 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월드컵경기장에서 3천500여명의 당원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한나라당(128석), 열린우리당(108석)에 이어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 구성요건을 갖춘 제3당이 출현, 원내구도와 범여권 통합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신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중도개혁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천명하고 ▲민생정치 ▲선진경제도약 ▲남북평화시대를 실천강령으로 채택했다. 신당은 또 통합신당모임이 단독으로 합의 추대할 3선의 김한길 의원을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창당은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정치권 안팎의 중도개혁 세력을 하나로 담아내는 대통합의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신당은 8일 오전 김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4명의 최고위원을 선출,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통합신당은 창당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협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신당모임은 지난달 26일 강원·충북도당 창당을 시작으로 30일까지 8개 시·도당 창당작업을 완료했다. 신당은 이번 창당에 따라 분기별로 12억8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김한길 대표 등 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의원들이 7일 올림픽공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환호하는 당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모임은 당초 동반 탈당 의원 25명 중 이강래·전병헌 의원 등 6명의 이탈에 따라 전체 의원수가 교섭단체 구성요건(의원 20명)에 못 미치는 19명에 그쳤으나 우리당 유필우(인천 남남) 의원이 막판에 합류를 선언,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날 창당행사에는 우리당 내에서는 재선그룹의 일원으로 민주당과의 ‘제3지대 통합협상’을 진행 중인 임종석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가까운 김종인 의원, 통합신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신중석 의원이 나왔다.

한편 신당은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통합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그 길이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일반적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의 독자세력이 추가됨으로써 통합의 방법을 둘러싸고 세대결과 지분싸움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당은 원내 3당이 됐지만 이것이 또 다른 기독권으로 작용, 오히려 통합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 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경선 룰’ 내홍 확산 조짐

## 강재섭-김형오 지도부간 ‘파열음’ 李-朴 여론조사 방식 싸고 설전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 간의 공방이 확산일로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최고지도부마저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하면서 한나라당 내홍이 확산할 조짐이 다.

강재섭 대표는 7일 연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당 지도부와 대권후보들 만남에서 ‘경선룰을 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낼 테니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두 분 사이의 격양된 분위기에선 당장 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의명분과 내 정치인생의 모투를 걸고 정말 명분 있는 안을 만들어 최고위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때까지 모두 말을 아

끼고 당을 위해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최고지도부 중심의 중재안 마련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연합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룰과 관련해 박 전 대표 측과 이 전 시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당 분열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중재안을 내지 말고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위 중심의 경선룰 확정 필요성을 주장한 뒤 “경선룰 손질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 4·25 재보선 참패 이후 부정부패와의 단결의지를 보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투쟁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완전히 엇갈린 셈법을 제시한 것으로, 경선룰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의 이날 거취 관련 발언은 사실상 김 대표의 자진사퇴를 우회 압박한 것으로 해석돼 당이 금명간 제2의 지도부 총사퇴론에 휩싸이면서 심각한 분열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양 주자 진영은 이날도 여론조사 방식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이날 “지난번 논의 때 여론조사 부분도 의심의 여지 없이 합의사실로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불리한 것 같으니 바꾸자는 게 많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계 박형준 의원은 “지금까지 ‘8월~20만명’ 경선룰에 대해 부분합의만 됐을 뿐”이라면서 “세부적인 여론조사 부분은 합의가 안 됐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병완 “철새 정치인 국민이 심판해야”

이병완 청와대 정무특보는 7일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당을 바꾸는 ‘철새 정치’(행태)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무특보는 이날 무안군민의 날 행사 기념 초청 강연에서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신의 정적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뒤틀린 정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무특보는 “정치인의 원칙은 폭력 세계의 의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리”라며 “정치인은 국민 앞에 마지막 한 순간까지 의리를 지켜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 그는 “우리 정치가 불리하면 뜻을 같이 입고, 집을 바꿔(당을 바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기웠”다며 “원칙 있는 정치만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무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일부 대선 예비주자들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새로운 정파



7일 무안군민의 날 초청 강연에 참석한 이병완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민주당 의원을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정치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 이재오, ‘뽕’ 방문 갈등 수습책 지문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7일 이회창 전 총재를 깜짝 예방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3시에 남대문 사무실로 이 전 총재를 예방, 배석자 없이 약 30분 동안 환담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선 룰’ 논란을 포함한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강재섭 대표가 중재안을 만들고 있지만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또 당 위기극복책에 대한 해법을 묻기 위해 예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 최고위원의 이 전 총재 예방에 대해 ‘참심(真心) 잡기’ 행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최고위원이 당내 영향력이 견제한 이 전 총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당 위기 해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빌려 참심 구애에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 “신당은 대통합 전진기지 될 것”

## 김한길 통합신당 대표 일문일답

중도개혁 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7일 창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술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분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창당대회를 결행하게 됐다”며 “절대로 우리가 독자세력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친인 고 김철 통일사회당 당수에 이어 20여 년 만에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은 어떻게 하나.

▶지난 며칠 동안에도 비공식

라인으로 통합 관련 얘기가 오갔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께서도 대통합의 한 단계로 통합신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다. 얘기가 빨리 진척된다면 머지않아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선 후보로 어떤 분을 염두에 두나.

▶우리와 크게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통합의 길을 찾을 것이다. 대선 예비주자들과 함께 국민경선에 나설 의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중도개혁 대통합세력의 대표주자를 골라내는 일이 필요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

▶정 전 의장과는 지난주에 한번 만났고 5월 중 편가 결정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 전 의장이 당적을 정리하면 당연히 중도개혁 통합세력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의원 추가 영입 계획은. 또 당 대표 아닌 다른 계획이 더 있나.

▶김한길에게 욕심이 있다면 대통합에 기여하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전부다. 당 대표를 맡은 것이 독배라고까지는 못해도 쓴 잔인 것만은 틀림없다.

## 정형근 의원 불출석단 檢, 소환장 보내기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7일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이날 “정 의원과 출석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필요한 시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고소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명백한 처벌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고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 조사가 진척된다”며 “고소 대의인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본인 직접 조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 대리점 모집 안내

당사는 덤프트럭용 자동덤펀개 전문메이커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수양이라는 브랜드로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금번 다음 지역의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개설예정지역

- 광주광역시 지역
- 전남 광양, 순천시 지역
- 제주도 지역

### 자격요건

- 덤프,특장차 정비 유관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운전실비가 갖추어진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
- 덤프 자동덤펀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
- 부동산 담보 설정이 가능한 분

### 특 점

-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보장
- 주요 직거래처 출고차 뒷게 장착대형 보장 스카니아코리아, 볼보트럭, 타타대우상용차



(주)SY테크(수양) 문의: (055)385-2364/011-879-1472 Fax.(055)386-8517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499-4 http://21sooyang.com

#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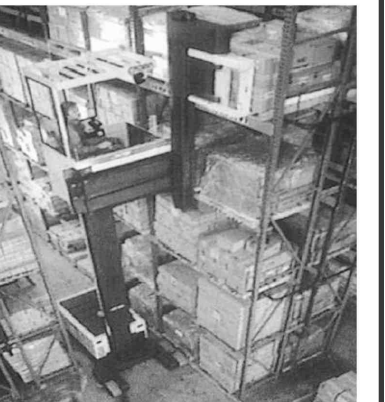
## 품질은 100% 가격은 80%

###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 적용범위



자동창고 및 물류 배송센터 ▶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사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경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시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됩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 주요실적

■ 현대자동차, 삼성전지(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기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총판 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